책 읽는 도시 김해의 시장, 책에서 시정을 배우다.

글_ **김맹곤** 김해시장

나는 1945년, 해방둥이로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우소락 마을에서 태어났다. 불과 10여 채의 이웃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그야말로 전형적인 두메산골이었다. 그 시절 모두가 그랬겠지만 당시 지독한 가난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 갔다 오면 소 먹이고 꼴 베고, 농번기에는 어른들이 하는 농사일도 함께 도와야 했다. 언제나 깜장 바지저고리에 검정고무신, 점심도시락을 못가지고 와서 점심시간이면 우물가로 달려가 맹물로 배를 채우곤 하던 시절이다. 공부를 하고 책을 사서 읽는 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웠다. 우리집은 특히나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바로 들어갈 형편이 못돼 집에서 농사일을 도왔다. 당시에는 아침에 책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다. 이듬해 형편이 좀 나아져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에는 하루에 왕복 60리 산길을 통학했다. 오전 6시에 출발하면 9시에 학교에 도착했다. 하루 6시간을 길에서 진을 빼고 집에 와서는 또 농사일을 거들어야 했기에 공부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는 유난히 시를 좋아했던 것 같다. 특히, 소월의 시는 거의 모두 외우다시피 했다. 제대로 된 도서관도 없었고 그렇다고 책을 사서 읽을 형편은 더더욱 못되었기에 나의 청소년 시절은 이렇듯 책과 공부에 대한 갈망만 키웠던 애틋한 기억으로 채워져 있다.

내가 이런 시절을 겪어서일까 나는 유난히도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나 책 읽는 환경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된다.

김해는 '책 읽는 도시'로 꽤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선언적 의미가 강했지만 지금은 내실을 다져 매년 전국에서 수백명의 도서관 관계자들이 김해를 찾는다.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 운동이 한창이고 One City One Book사업으로 매년 '김해의 책'을 선정하고 전체 시민이 함께 읽고 소통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분들이 가장 감탄하는 것은 바로 독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통합도서관시스템이다. 전체 44개 도서관을 통합한 이 시스템으로 시민들은 가까운 도서관 어디에서나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다. 이미 회원

수가 12만명을 넘었고 이용가능한 도서도 180만권이나 된다. 이처럼 김해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 독서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 말 그대로 김해시는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를 지향하며 언제 어디에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나 또한 '책 읽는 도시 김해'의 시장으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최대한 책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제는 나도 모르게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에 저절로 눈이 가고 손이 간다는 것이다. 최근에 읽은 '성공하는 지방자치를 위한 55가지 정책 아이디어'(저자 김광남)는 나로 하여금 현재의 각종 지역개발과 도시문제에 대해 되돌아보게 만들고 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한 참 정책을 고민하게 만든다. '복지도시를 만드는 여섯 가지 방법' (저자 : 김용익, 최영희, 박은수, 백원우)은 시장직을 수행할 초기에 읽었는데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나침반 같은 역할을 했다. 당시 김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바로 난개발과 재정난이었다. 거의 매일 새벽 4시면 나도 모르게 눈이 떠질 정도로 내 머릿속은 온통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인구 50만 김해를 어떤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할지'라는 고민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런 가운데 만난 그 책은 뭐랄까 마치 난개발과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를 모델로 해서 쓴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추상적으로 그려왔던 김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확실한 이정표를 찾은 느낌.... 이제는 '개발이 아닌 복지를 통해 도시가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대해 가졌던 약간의 의구심도 사라지고 보다 확신을 갖고 복지도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특히, 아직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아니면 도시가 발전하는 게 아니다.' 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난개발을 해결하고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항상 설득해야 하는 나로서는 이 책을 통해 더 탄탄한 논리로 무장하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좋아하고 언제나 타인에게 추천하는 책은 바로 '정관정요'이다. 나 자신을 계속 돌아보고 경계하고 더 노력하게 만드는 책, 나는 이 책을 두고두고 몇 번이고 본다. 중국역사상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당태종 이세민의 정치철학을 현종때 학자였던 오긍이 기술한 일종의 제왕학이지만 나는 여기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살이의 지혜를 얻고 조직의 책임자, 지도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배운다. 특히, '기둥이 바르게 섰는데 그 그림자가 굽어 있다거나, 위에 있는 위정자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아래 백성들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은 일찍이 없었다.' 는 내용은 50만 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김해시장으로서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 아울러, '숲이 깊으면 많은 새가 서식하고, 개울의 흐름이 크면 많은 고기가 놀며, 사람이 인의와 도덕의 실행을 거듭 쌓으면 천하의 사람들이 자연히 그 사람을 사모하여 따른다.'는 내용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말해준다.

최근에 우리시는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세계적인 IT 기업인 만큼 앞으로 우리시를 IT 허브도시로 만들려는 비전에 큰 주춧돌을 놓은 셈이다. 손정의 회장은 워낙 유명한 분이라 이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손정의 성공법'(저자 : 미키 다케노부) 이라는 책을 읽었다. 나도 사업가 출신이라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다. 특히, 19살에 '인생50년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이 인생계획을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 실현해오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을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라면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 추천하고 싶다.

물론, 마지막 순간에서야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회사안팎의 균형을 깬다는 말은 시정을 이끄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역동적 조직을 위해 긴장과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공감이 가기도 한다. 이밖에도 높은 장애물을 설정하고 이에 도전하는 점, 리스크를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지 않고 본인이 책임진다는 점, 특히, 300년 계획 수립은 시정도 비전이 없으면 장기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없기에 시장으로서 꼭 배워두어야 할 점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나는 책에서 시정을 배우고, 책에서 우리 김해시가 궁극적으로 가야할 길을 찾는다. 그리고 때론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원들에게도 권하고 더 나아가 우리 시민들에게도 권하기도 한다. 책속에 길이 있다는 말은 시정에도 통하는 것 같다.

끝으로, 책읽기의 필요성은 책을 읽을수록 더 크게 느끼는 법이다. 때문에 나는 우리 시민들 특히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고 더 많이 읽기를 바란다.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쌓고 교양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 넓은 세계를 만나고 즐겁고 풍요로운 삶을 얻기를 바란다. 책은 모든 상상력의 원천, 창조의 원동력이라 말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앞으로도 '책 읽는 도시 김해'의 시장으로서 우리 시민들,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책을 맘껏 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